

대지의 딸들

-베이징이후의 한국여성 환경운동-

unc/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유엔의 창설50주년 기념행사로 마련한 제4차 세계여성회의가 평등, 평화, 발전이란 주제로 중국 화이로우에서 지난 8월 30일에서 9월 15일까지 4만여명의 세계 여성지도자들에 의해 정부대표회의와 NGO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치색이 짙었던 10년전 나이로비 회의에 비해 여성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었던 결과로 참가국들의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과 종교,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동등한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앞으로 10년간의 행동강령과 그 행동강령의 실천을 촉구하는 북경선언이 채택된 것을 큰 성과로 평가한다.

한국대표단의 구체적인 성과는 내년도에 개최예정인 아태지역여성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도록 한 것이다.

회의기간동안 전례없이 국내의 언론기관도 상당한 지면과 화면을 할애한 탓으로 대회 현장에 가지 않고도 이 회의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여성 환경회의-「대지의 딸들」:

이 회의기간동안 같은 장소인 화이로우에서 또하나의 포럼이 열렸는데 이에 대한 소식은 보도되지 않았다. 이 포럼이 바로 83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여성환경개발기구(WEDO-Women Environment, Development Organization)가 조직해 낸 「대지의 딸들- Daughters of the Earth」이라는 제하의 제2차 세계여성환경회의(World Women's Congress for a Healthy planet)이다.

제1차 세계여성환경회의는 1992년 리우에서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 앞서 미국의 마이애미에서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 채택된 「세계여성행동계획 21(Women's Action Agenda 21)」은 지구정상회의에 제출된바 있다.

WEDO에서는 이 포럼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의 환경과 개발을 위한 협력관계의 네트워크(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llaborative Web)를 형성하는 것으로 마련했다. Web(한필의 천)은 환경과 개발에 대한 여성의 통찰력과 전략을 서로 나누며 연결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실천의 촉매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행사의 일환이다.

세계의 78개에 달하는 다양한 환경단체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진 Web은 「대지의 딸들」이라고 이름지어졌다. 몇 중국 환경인들이 설명한 그들의 전통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중국사람들이 서로 보살피고 양육하는 유대관계는 어머니와 딸 사이와 아주 강하다고 하는 그들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Web의 회원단체들이 이 생각을 받아들인 것은 지구와 인간사이의 관계가 바로 그래야 한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령, 종교, 종족, 계급, 언어, 문화, 성 등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은 누구 나가 「대지의 딸들」이라는 의미이다.

Web회의의 초반 6일간은 21세기의 여성이 감당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과제로서 무역과 국제경제,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새로운 군국주의와 새로운 평화운동, 건강과 치료, 여성의 저항전략과 지속가능한 대안들, 그리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계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9월 6일에는 여성의 평등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로 축하행사를 가졌다. 1995년 국제여성의 날(3월8일)에 베이징회의를 앞두고 수백의 참가단체들이 만든 '95여성실천운동 180일/180가지'를 마감하는 것이었다. 이 행사는 세계 여러나라의 여러단체들이 3월 8일에 시작하여 9월 6일까지 180일간에 여성의 평등을 성취하기 위해 전개한 행사이다.

326 Web은 UNEP, UNDP, 세계은행 등을 비롯한 환경과 개발에 관련 있는 국제적인 기관대표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한일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을 마지막 행사로 제2차 세계여성회의를 폐막하였다. 이 포럼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UN과 각 국가가 결의한 과제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것의 재평성과 성취방법의 모색 그리고 필요한 자원의 제공이었다. 그리고 이 포럼의 당면과제는 유엔으로 하여금 약속을 이행하고 여성들로 하여금 최고 결의기구에 참여하게 만드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WEDO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베이징에서의 성과를 각 국가에서 회의를 통해 또는 운동을 통해 실현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일도 잊지 않고 있다.

포럼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Web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바르게 그리고 잘 준비되었는가 하는 점은 이 회의가 배포한 회의자료들에서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6개 소책자로 만들어진 「다국적 기업」에 대한 것이 눈에 띈다. 내용이 충실하게 마련된 것에서도 WEDO의 진지함을 엿볼 수 있었지만 그 문제를 우선과제로 선정한 WEDO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 이유는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문제는 그들의 로비에 의해 회의의 의제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리우선언」이나 「의제21」의 내용에 어떤 형태로나 거론되지 않도록 조치되었던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NGO포럼에서 합의된 대체협약과 마이애미에서 마련된 「세계여성행동계획 21」에서는 오늘의 지구환경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주장한바 있었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국가수반으로 구성된 지구정상회의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기보다 경제 외교의 각축장이 되었고 막강한 경제력과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회의를 뒤흔든 다국적 기업의 논리를 당해 내지를 못했었기 때문이다.

이토록 금기시 되어 있는 다국적 기업의 문제를 세계여성환경인들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은 자부할 만하다.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데서 여성의 강인함과 통찰력 그리고 생명중심의 굳은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WEDO가 앞으로 계속 '92 지구정상회의에서 배제되었던 군사문제, 소비태도, 핵문제, 개도국의 외채문제 등을, 깊이 있게 다루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여성환경인의 참여-작은 실천으로 사회변화를:

이번 북경에서의 Web에 참가한 한국여성환경인은 22명이었다. 이들은 '95년 2월 15일 한국의 10개 환경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여성과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한국NGO 네트워크」의 회원들이다. 이 들은 회의에 참가하기에 앞서 「여성과환경총서」를 발간하고 「한국NGO 보고서」를 작성하며 참가준비에 열을 다했다.

이들은 대안적 사회는 우선 지속가능해야 하며 여성의 시각으로 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여성과 환경 네트워크 보고서에서 결론 내리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그들의 결론이 북경여성대회 포럼 곳곳에서 확인하였으며 행동하는 대안으로서 관념적이 아닌 작은 일이라도 실천에 옮겨 구체적으로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노력의 흔적을 살필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한 예로서 일본동경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10개국의 여성 및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아시아여성연합」이 개최한 워크숍에서 발표된 사례들을 들고 있다. 중국 농촌여성들은 가족의 분노와 습지를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통해 작물을 재배해 판매한 수입으로 그들 자신의 생활과 교육수준을 향상시킨 일과 인도여성들이 그들의 땀감을 마련하는 것으로 벌채하는 대신 가족분노와 낙엽을 활용해서 얻는 에너지대안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례로서는 생활협동조합 활동으로서 무공해 식품의 직거래 활동이 소개되었다고 한다.

이 워크숍에 참가한 아시아 10개국의 17개단체의 운동가들은 자신들이 일상에서 부딪쳐온 문제들이 바로 지구전체의 자원의 개발 및 경제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실감했다고 한다. 또한 지역과 운동내용은 달라도 상황을 판단하는 시각이나 전망은 세계의 운동가들이 같이하고 있어서 참가자들은 「행동하는 대안(Alternatives in Action)」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의 연대를 구체화해갈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이 연대에 한국여성환경인들은 「여성과 환경 네트워크」를 거점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입장에서 지구차원의 대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베이징이후-한국여성환경인의 과제:

한국여성환경인의 베이징이후의 과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 하나는 환경문제가 지구적인 문제이며 지구인의 공동 노력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임을 감안해서 이번 베이징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과 개발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연대를 보다 강화하는 일이다.

둘째는 지난 30여 년간의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심각해진 우리나라의 지역환경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주민의 지역사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모든 주민들이 작은 실천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을 정착시키고 자기고장을 생태지역으로 만들게 하는 일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1)국제연대로 환경운동강화

우선 한국여성 환경인들이 단행해야 할 일은 환경과 개발에 대한 다양한 국제기구 중에서도 WEDO에 가입하는 일이다. WEDO는 유엔의 자문기구로서 대유엔 또는 대국제회의의 여성들의 환경관련 발언의 창구이다. 한국여성환경인들이 국제적으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며 서로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다른나라와 연계하고 한국여성환경인들이 국제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WEDO에의 가입은 「아시아여성연합」에서처럼 한국의 「여성과 환경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것은 현 기구를 확대개편하여 새로운 조직으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현재 이 네트워크에는 경실련환경개발센터, 크리스찬아카데미, 배달녹색연합, 생태사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서울 YWCA, 환경운동연합, 불교자원봉사자연합회, 그리고 원불교여성연구모임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10개 단체에 이어 또다른 시민단체나 환경운동체들이 가담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북경에서의 Web의 가담단체의 면면에서 볼 수 있듯이 단일 과제의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체들이

다수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농촌운동 소비자운동, 생협운동 등의 참여를 유도 해내는 한편 우리의 환경운동을 폐기물 문제, 수질문제, 생활양식, 에너지문제, 생태계보전, 녹화작업, 등으로 세분화시켜서 특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운동을 개념적인 운동차원에서 실천을 통해 사회개혁을 이룩하는 생동감 넘치는 운동이 되게하는 것이다. 구체적 실천운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에 도움이 된 결과 얻어진 경험과 성과가 바로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시민자치시대의 지역 녹색운동 참여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우리나라 환경운동은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저항운동과 의식 있는 운동가들에 의한 문제의 폭로, 고발, 시정촉구 등의 운동으로 이어져 왔다. 최근 들어 마실 물과 생활쓰레기처리에 대한 위협을 체험하면서 시민들의 환경인식은 높아지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작은 일부터 실천해 옮겨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환경파괴에 있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가해자로서는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실천에 옮겨야 하며 피해자로서는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산과 정책을 촉구해야 하며 지역환경과 지구환경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구환경문제가 거창하고 복잡하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사소한 방심에서 비롯되며 그 해결도 각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각 개인의 일상생활의 환경점검은 중요하다. 에너지 절약, 쓰레기 감량, 자원재활용, 물 절약, 대중교통수단 활용, 등의 소비억제가 바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이다. 지금까지처럼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기만 하고 또한 국민들이 정부가 무엇인가 해주기만을 바라는 자세로서는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불가능해 졌다. 지금 시민자치시대를 마지해서 주민들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환경오염을 주려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일은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웃과 함께 하는데서 가능해진다. 주민의 지역사회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운동
분할하기
간접성

근래에 와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부운동, 주민운동, 생협운동, 무공해식품직거래운동 그리고 폐기물분리수거운동,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운동 등의 친환경적인 생활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러한 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확산하는 일이 「여성과 환경 네트워크」의 새로운 과제가 돼야 한다.

이렇게 출발한 주민 지역활동이 나아가서는 그 지역을 녹색지역으로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가장 구체적인 과업은 각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제 21」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주민들이 시작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일이다.

지난 6월부터 출범한 지방자치체들이 녹색지역만들기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내는가 하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여성과 환경 네트워크」는 바로 이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베이징이후의 한국 여성환경인들은 이번기회에 얻어진 경험과 확보한 국제 네트워크를 백분 활용해서 우리의 생활양식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내고장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고 나아가서 지구환경을 현세대와 미래세대인들이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일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것이 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일이다.